

유림의 거성 최익현의 문인으로서는 27세때 을미정변을 당한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곽한일 장군이다.

그는 1869년 12월 25일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서 태어나셨다. 이분의 본관은 청주 이름은 한일이며 호는 장암이요 자는 원우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고 학덕이 매우 뛰어나며 최익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채국 정신이 더욱 강했다. 기개가 곧고 의지가 강한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불사할 수도 있는 분이셨다. 이때의 정세는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도 혼란스러우며 극악 무도한 일본 세력에 눌려 기세를 펴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시대였다.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자 의지가 강하며 누구보다도 기개가 곧은 이분은 위정척사의 기지를 발휘하여 안동 방면에서 신돌석 부대와 합세 많은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했다. 홍성 전투에서의 일화이다. 어느날 새벽 일본군에서 쫓겨 홍주성 꼭대기로 뛰어 올라 몸을 피하했는데 별안간 안개가 자욱하게 끼서 몸을 감추는데 안성마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곽한일 장군의 눈앞에 번쩍하는 것이있어 무의식중에 그것을 잡아보니 그것은 일본군인의 일본도였다. 그리하여 그 일본도를 받아 아래를 향하여 던졌더니 안개가 걷히고 일본군이 몰려간 뒤에 내려가보니 곽장군한테 칼을 던졌던 사람이 그 칼에 맞아 죽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느님까지도 그를 돌보았는가 보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주 독립에 뜻을 둔 젊은이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여기서 무얼 하노무니까? 라는 날카롭고 비열한 일본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젊은이들은 당황하였으나 곽장군 만은 태연한 채로 "우리는 지금 내 생일을 맞아 조촐하게나마 잔치를 하려는 중이요"라고 대답했다. 일본군은 그래도 의심스럽다는 듯이 방안 구석구석 살살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더니 아무것도 수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 후로 독립 운동을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5월 홍산, 전남 지도에서 민중식과 합세하여 홍주성을 탈환하고자 많은 의병들과 말을 모으던 중 불행하게도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민중식과 곽한일은 감옥에 가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 갇은 각고 끝에 그분은 4년만에 옥에서 나오실수가 있었다. 이때 고종 황제는 극비로 독립 의군부 총무총장을 전교하시며 의대소와 함께 칙서와 칼을 하사 하셨다. 이에 재차 항전을 위하여 충남 아산군에 태극 서원을 가설하고 안성땅에 약국을 설치하여 동지 모집과 군자금 마련에 주력을 기울였다. 한명의 젊은이가 약국에서 곽장군과 밀담을 나누고 있을때 유심이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곽한일 장군은 약국을 경영하면서 모은 독립자금을 이 젊은이에게 약봉지에 담아주면서, "이 약만 먹으면 꼭 나을 것입니다. 꼭 그럴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어서 가져다가 먹이십시오." 젊은이도 약을 받아서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며 의미심장하게 미소지었다. 그리고는 약방을 나오는데 야수의 눈빛으로 "잠깐"하며 길을 막고 독립군의 몸을 수색하려 하자 독립군은 일본 헌병을 후려치고는 재빨리 그곳을 피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곽한일 장군은 쓰러져 있는 일본 헌병을 치우고 난뒤 열은 약국문을 닫고 몸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일하던 중 많은 일본 헌병들이 몰려와 곽한일 장군은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당하고 말았다. 곽한일 장군이 감옥에서 어두운 날을 보내게 되었을 때 곽장군은 일본군이 주는 음식에 입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쌀알은 우리 백성의 살이요, 이 국은 우리 백성의 피인 것을 어찌 내 스스로 백성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는가?"라며 모든 것을 거절했다. 단식을 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모진 고문과 굶주림에 지친 곽장군을 살려서 다른 독립군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보살핀 끝에 곽장군의 입을 열게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끝내 곽장군은 입을 열지 아니한 채 감옥속에서 갇은 고생끝에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보지도 못하고 자유없고 어두운 생활에 지쳐버려 1936년 68세를 일기로 결국 파란만장한 막을 내렸다. 이분의 유해는 충청남도 송악면 평촌리2구 뒷산에 후손들과 함께 자리잡고 있으며 그때 고종황제께서 하사하신 의대소와 칼은 독립기념관이 세워지면 그곳에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분의 후손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님의 영혼이 편안히 잠드실날이 그 언젠런지요. 우린지금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찾긴 했습니다만 할아버님이 원하셨던 통일된 하나의 완전한 독립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난 이말을 듣고 가슴 뭉클한 그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듯 우리의 곽한일 장군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 가셨다. 이밖에도 우리 선조들은 알게 모르게 자유탈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분들은 왜 그다지도 자유를, 또 조국을 사랑 했을까?

왜 그렇게 사랑해야만 할까? 또 지금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우린 알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한 몸이 둘로 갈라진 뼈저린 아픔

을 겪고 있다. 곽한일 장군이 그렇게도 추구하시던 대한의 자주독립은 획득했으나 그 못지 않게 사무친 아픔이 우리에게 돌진해 왔다. 우리 지금도 우리 민족이 바란것이 아닌 순전히 타국에 의해서 반쪽은 태양빛을 받아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하는가 하면 반쪽은 어둠 속에서 굶주리며 얼떨리고 있다.

우리 나라를 한 생물에 비유한다면 우리 뿌리없는 나무와 그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안다.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 이 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한 독립(자유)을 획득하는 날 지하에 계신 곽한일 장군도 흐뭇한 미소를 지시며 편안히 잠드실 수 있지 않을까?